



살아있는 민속박물관 외암민속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외암민속마을! 충남 대표 마을을 떠나 전국적으로도 너무나 유명해진 이 마을을 필자는 이제야 찾아갔다.

5월의 따뜻한 어느 날, 카메라가방을 둘러메고 외암민속마을을 찾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았다. 아산시내에서 약 8km 떨어져 있고,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유구IC에서 송악방면 39번 국도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동안 외암민속마을은 너무나 많은 소개가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써야할지 무척 난감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마을을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보자.

● 왜 외암일까?

아시다시피 설화산 남서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외암마을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살아 있는 민속박물관이다. 마을 자체가 바로 중요민속자료 제2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의 외암마을은 조선 선조 때 예안이씨가 정착하면서 집성촌이 되었고, 당시 마을과 가까운 곳에 말을 거두어 먹이던 시흥역을 오양골이라 불렀는데, 여기서 마을명이 외암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성리학의 대학자인 외암(巍巖) 이간(李柬) 선생이 마을에 살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의 호가 외암인 이유도 바로 마을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가옥의 이름이 관직명이나 출신지명을 따서 참판댁, 감찰댁, 참봉댁, 종손댁 등의 태호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마치 결혼한 시골 아낙네를 부를 때 고향명을 따서 부르는 부여댁, 대구댁 등과 같은 친근한 느낌이었다.

● 이제 본격적으로 외암마을을 둘러볼 차례



〈사진 2〉 건재고택 대문앞에서 바라본 사랑채와 정원 모습



〈사진 3〉 건재고택 연못의 모습

이 지면을 통해 외암마을의 모든 문화유산을 소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함이 있을 듯해서 간단히 중요 유산만을 소개해보도록 하자.

먼저 중요민속자료 제233호로 지정된 건재고택을 찾았다. 이 고택은 행안부 지정 ‘정원 100선’에 선정된 곳으로 이간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원은 쉽게 개방하는 곳이 아니어서 평상시 대문이 굳에 닫혀있을 때가 많았지만, 마침 운이 좋아 직접 대문안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마당은 멋드러진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이 심어져 있고 한 칸엔 학의 모양을 한 아름다운 연못을 중심으로 작은 계류가 형성되어 있으며, 역시 괴석과 노송 등 많은 수목으로 꾸며져 있었다. 대문에 들어섰을 때 사랑채가 바로 보이지 않게 정원수를 심는 것이 첫째 원칙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그리고 연못과 정원을 가꾸기 위해 설화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명당수를 끌어들이어 정원수로 활용했다고 한다.

외암마을을 둘러보다 보면 길옆으로 물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인공수로는 설화산이 불을 상징하는 화(火)의 기운을 갖고 있다 하여 이 불과 상극인 물을 끌어들이어 제압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참판댁과 참봉댁, 그리고 송화댁 등이 있는데, 참판댁은 이조 참판을 지낸 퇴호 이정렬 선생이 살던 집이라 ‘참판댁’이라 불리며, 참봉댁은 다른 집과 달리 특이하게 ‘—’자형 안채와 사랑채가 나란히 2열로 평행 배치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송화댁은 과거 송화군수를 지낸 이장현으로 인해 택호가 붙여졌는데, 이 고택은 앞쪽의 사



〈사진 4〉 종손댁 옆에 자리잡은 외암사당

랑채와 뒤쪽의 안채가 마치 ‘ㄷ’자형처럼 위치하고 있다. 이 송화댁의 정원은 일부러 사람의 손길을 많이 주지 않아 자연미가 절로 흘러나오도록 했으며, 정원의 수목도 들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수종을 심어 친근함을 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암 종손댁이다. 이 집은 외암마을 위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예안씨 종손이 살고 있다고 하여 종손댁이라 불여졌다. 바로 옆엔 외암사당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아름다운 길과 시골 풍경에 흠뻑 빠져보자

외암민속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멋스러운 돌담길이다. 총 6km에 달하는 이 돌담길 중 가장 아름다운 길이 처음으로 필자를 맞이했다.

이 돌담길을 걷다보면 마치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시작하는 문턱을 통과하는 기분일까?

아마도 북촌이나 전주의 한옥마을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느낌보다는 자연속의 녹아있는 수줍음에 더 눈길이 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정말 도둑질하려는 게 아니라면 돌담길 너머로 집들을 훑쳐보는 재미도 나름 쏠쏠하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사실! 바로 이 마을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필자가 외암마을을 둘러보며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사계절 시골의 농사 풍경이 그대로 담겨 있고, 마을 주민들은



이 곳을 방문한 이방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마침 마을을 찾아갔을 당시에는 봄철 농번기로 논과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민분들을 자주 마주칠 수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 농사일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맘이 생길 정도였다.

● 다양한 체험과 축제, 그리고 특산물이 가득

외암마을은 도농교류를 위한 도시민 체험의 장으로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2011년도 "대산 농촌체험마을" 13개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충남에 사는 태안 벚가리마을과 함께 딱 2군데였다.

마을을 둘러보다 보면 팜스테이생활관, 한지공예, 떡메치기 등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집들이 눈에 띈다. 그리고 맘만 먹으면 전통혼례로 결혼식도 올릴 수 있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외암마을 홈페이지(www.oeammaul.co.kr)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한다.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과 민박 등을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센스도 필요하다.

또한, 외암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고, 400년 전통을 이어온 참판댁 전통가주로 유명한 연엽주는 은은한 연향과 향긋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그리고 매년 음력 1월 14일 장승제에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달짚태우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이 재현되며, 매년 10월에 열리는 짚풀문화제에서는 축제기간 동안 국악공연 및 짚풀공예(짚신, 이엉엮기 등), 추수(벼베기 등), 공장(장승만들기, 연만들기 등) 체험 등 민속문화 체험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과거를 거슬러 다시 현재로

외암민속마을은 지금 현재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을 계속 보고 느낄 수 있으려면 누군가의 보살핌과 관심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그냥 나는 관람만 하면 되겠지 뭐... 물론 그래도 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있는 외



암마을을 좀 더 사랑해주고 알려야 할 것 같다. 더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도 있다고 하니 더욱 자랑할 맛나지 않은가?

이제야 처음으로 외암마을을 가 본 필자가 할 말은 없지만,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꼭 들러보길 권한다. 500년 전 과거로의 시간여행치고 2,000원의 입장료(어린이 1,000원)는 흐뭇할 뿐이니까.

[외암마을 패키지 여행]

● 현충사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에 위치해있다. 공이 성장하여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던 곳이다. 1706년 숙종 32년에 충무공의 얼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사당을 세웠으며 본전 내에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유물관에는 일생기록인 십경도와 국보 76호인 난중일기 보물 326호 장검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충무공이 살던 옛집, 활터, 정려 등이 경내에 있다.

▶ 홈페이지 : www.hcs.go.kr

▶ 전화 : 041-539-4600 (매주 화요일 휴관)

● 아산온양온천

온양온천은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역사가 근 1,300년이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시대에 온수군(溫水郡)이라 불리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 온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은 600여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산온천은 피부 미용, 혈관경화증, 신경통, 부인병, 위장병, 빈혈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해 있으며, 이외 유명한 아산온천과 도고온천도 있는데, 이곳은 주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함께 즐기길 원한다면 여기를 추천한다.

